창간 10주년을 맞아…

己巳年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해도 관계기관과 회원사 임직원, 장병 및 애독자 여러분에게 항상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 79년 1월 첫 선을 보인 이래 선진 외국의 武器體系와 국내외 업계동향 및 최신 무기기술 정보를 제공하여 自主國防의 조기달성에 一助를 해온 〈國防과 技術〉誌가 올해로 창간 10주년을 맞게된 것을 회원사 및 애독자 여러분과 함께 自祝하면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값진 寄稿를 해주신 執筆人士와 발행에 힘쓴 편집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70년대초 자본과 기술은 물론 人的資源조차 빈약한 국내여건속에서 自主國防을 위한 절대적 필요성에 의해 태동된 우리의 방위산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지원과 업계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 이제는 기본적인 재래식 무기체계의 양산단계를 넘어 尖端精密兵器를 독자적으로 개발할수 있는 技術高度化의 문턱에 이르게 됨을 볼때 새삼 감개가 무량할 뿐입니다.

이러한 괄목할만한 성장과 더불어 국가안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방위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 우리 防衛産業振興會는 방산업계의 경영합리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자율적 성장기반 구축과, 방위산업의 국제화시대에 부응한 대외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힘의 배양을 통한 「有備無患」의 자세만이 냉엄한 국제환경속에서 우리의 生存權을 수호할수 있음을 재인식하며, 韓·美 防産會議등 民間主導의 해외협력을 더욱 활발히 모색해 나가면서 국산화의 촉진과 고도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가속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내 유일의 軍事專門誌로서 방위산업의 성장과 軌를 같이해온 〈國防과 技術〉誌가 창간 10주년의 오늘을 맞기까지 성원해주신 회원사, 관계당국과 장병,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올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항상 평안하시길 거듭 기원합니다.

1989년 1월

韓國防衛産業振興會
회 장 柳 纘 佑